

“목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 코로나19 신규 확진, 일주일째 ‘더블링’

중대본, 일주일간 국내발생 확진자 하루 평균 1만6344명  
 재택치료자 41일 만에 10만명대...해외유입 200명대 이어

지난 9일 전국에서 2만410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일주일째 ‘더블링’ 현상을 보였다. 해외유입 확진자도 전날에 이어 200명대를 이어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2만410명 늘어 누적 1851만1845명이다.

전날 2만286명에 이어 이틀째 2만명대 확진자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124명 늘었고, 일주일 전인 지난 3일 1만53명보다는 1만357명 급증한 수치다.

전주 대비 신규 확진자 수가 두 배 가량 늘어난 ‘더블링’도 7일째 이어지고 있다.

국내발생 확진자는 2만169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3055명(15.2%), 18세 이하 4553명(22.6%)이다.

최근 일주일간 국내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1만6344명 발생해 지난주 8192.9명보다 2배 정도 늘었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250명으로 이틀째 200명대다. 이날 해외유입 확진자 중 13명은 공항·항만 등 검역 단계에서 나왔다.

최근 1주간 해외유입 확진자는 164명→171명→224명→194명→191명→223명→250명으로 하루 평균 202명 수준이다.

지역별로 경기 5448명, 서울 5244명, 인천 931명 등 수도권에서 1만1623명(56.9%)이 감염됐다.

비수도권에서는 8774명(43.1%)이 확진됐다. 부산 1297명, 대구 488명, 광주 370명, 대전 524명, 울산 646명, 세종 196명, 강원 435명, 충북 562명, 충남 786명, 전북 574명, 전남 440명, 경북 903명, 경남 1061명, 제주 492명 등이다.

사망자는 19명으로 전날과 같고 모두 80세 이상 고령층이다. 누적 사망자는 2만4643명으로 전체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을 뜻하는 치명률은 0.13%다.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는 67명으로 전날보다 6명 늘었다. 60명은 60세 이상 고령층이며 50대 3명, 40대 3명, 30대 1명 순이다. 20대 이하에서는 위중증 환자가 없었다.

신규 입원 환자는 91명이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중환자실 가동률은 8.4%다. 수도권은 7.9%, 비수도권 가동률은 10.0%로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준-중환자실 가동률은 17%,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12.7%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10만7113명이다. 재택치료 환자가 10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5월30일 이후 41일 만이다. 전날 2만449명이 신규 재택치료자로 배정 받았으며 집중 관리군은 4077명이다.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은 전국에 836개, 24시간 운영되는 의료상담센터는 208개 운영 중이다.

유증상자와 확진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1만2913개가 있다. 이중 검사와 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6338개가 운영 중이다.

기동취재본부



전국 폭염특보, 해수욕장 ‘인산인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된 10일 인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 광주 여름방학 중 무상급식 시범 실시

50명 이하 위탁·50명 이상 학교 자율

교육단체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던 이점선 광주시교육감 2호 공약 ‘방학 중 학교급식’이 여름방학 기간 시범 추진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여름방학 기간 초등 돌봄학생과 방과 후 유치원생에 대한 급식을 직영·위탁 방식으로 시범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급식은 학교 급식실을 통해 점심을 제공하는 직영방식과 외부업체에서 도시락·단체음식을 학교로 배달하는 위탁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방학 중 급식 대상 학생이 50명 이하일 경우 위탁급식을 추진하고 50명 초과 학교는 급식 종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직영 또는 위탁급식 등 학교가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또 방학 중 급식은 그동안 학부모가 일정비용을 부담했지만 여름방학부터 무상으로 이뤄진다.

방학 중 학교급식 대상은 초등학교 150개교, 유치원 126곳 등 1만여명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8일 각급 학교에 방학 중 학교급식 추진 방안에 대한 공문을 배포했으며 학부모, 급식종사자 노동단체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리종사원들의 폐암 등 직업병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환기시설 개선, 전기 인덕션 조리기구·공기정화기 설치, 최신 조리기구 교체, 조리공간 동선 단축, 바닥 미끄럼 방지 공사,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안전장치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돌봄 아이들과 유치원 원아들에 대한 방학 중 무상급식은 여름방학 때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며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이번 정책이 학생·학부모·학교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재한기자

### 광주자치경찰 “내일부터 교차로 우회전때 횡단보도 만나면 무조건 일단 멈추세요”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12일 시행되는 보행권 강화를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맞춰 차량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에 대한 집중 캠페인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어린 이보호구역 내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앞서 10개 시내버스사와 76개 법인 택시사를 포함한 마을버스·전세버스 등 총 110여 곳의 여객운수사업 소속 운수종사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김태봉 위원장은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운전자와 시민들이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승호기자

### 마른 장마에 저수량 감소 광주시 “수돗물 아껴주세요”

‘주요 식수원’ 동북댐 저수율 23% 불과...수돗물 사용량 증가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절수 실천을 호소하고 나섰다.

10일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광주시민의 주요 식수원인 동북댐의 저수율이 23%(지난 8월 기준)에 불과, 이달 중순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경우 저수율이 20% 미만으로 떨어지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광주시의 수돗물 생산과 사용량은 평소 하루 50만㎥ 정도인데 이달 들어 기온이 상승하면서 54만㎥ 수준까지 증가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가뭄이 상당기간 지속

할 경우 수질 저하 뿐만 아니라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비상가동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가뭄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라 물절약 시민 홍보 방안, 급수 수계조절 계획과 비상급수대책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염방열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당분간은 비가 오더라도 동북댐과 주암댐의 저수율이 너무 낮아 평균치 회복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가뭄 극복을 위해 물 아껴쓰기 실천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유나기자



매실

산수유

오이

감